

# 공직사회 '부당 갑질' 뿌리 뽑는다

## 전북교육청,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전북도교육청이 공직자의 직무관련 남용, 부당행위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은 공직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

고 있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직무관련 등을 행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과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권한자·직무관련공직자·하급기

관 등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안된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인·허가의 부당한 지연과 거부 ▲직무를 벗어난 지시·요구 ▲부당한 기관의 의무 전가 또는 업무 지연 ▲업무와 그에 대한 비용·인력부담 전가 ▲상하기관에 대한 부당한 권리·권한 제한 및 부당한 요구 등을 명시해 금지토록 했다.

또한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도 신설됐다. 감독기관이 피감기관

에게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와 법령에 근거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를 엄격히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했다.

송용섭 감사관은 "개정된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주요 내용을 숙지·준수에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 "교육장 공모제 주저 말고 지원해야"

김승환 교육감, 확대간부회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당부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장 공모제를 통한 능력있는 교육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장 공모제는 1기 때부터 실시했고, 전국적으로도 유일하다"면서, "교육장 인사라는 중요한 사안을 교육감 혼자서 판단하지 않고 평가를 통해 객관성을 높이고, 또한 외부 청탁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교육감은 "현행 규정상으로는 적임자가 없을 경우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면서, "능력있는 분들이 교육장 공모

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능력을 가진 분들이 주저하는 게 보인다"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 아닌가 싶다. 실패의 경험도 공직자의 삶에서 큰 자산이 될 텐데 주저하는 모습에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완산학원 관련자들의 처분에 있어 신속하고 원칙적인 처리를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채용비리와 연관된 사람들은 '일인무효행위'로 처리하는 게 맞다"며, "원칙대로 진행하되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정은성 기자*

## 完州의 역사와 문화를 完走하다

전주박물관 특별전 '오로지 오롯한 고을, 완주' 오늘 개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과 완주군청(군수 박성일)은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특별전 '오로지 오롯한 고을, 완주'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전북의 역사문화전'의 13번째로 완주만의 특색 있는 역사정체성의 모색과 그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목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됐으며, 완주의 초기절기시대~고려초까지의 문화재를 주로 다뤘다.

1부 '한반도 최초, 금속문화를 받아들이다'에서는 석기를 사용하던 시대를 지나 금속이라는 신소재를 활용해 신기술의 꽃을 피운 완주 사람들에게 대해 살펴본다.

특히 갈동유적에서 출토된 잔무늬 청동거울과 청동칼·청동경창 거푸집이 완주의 고고학적 유물로는 처음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

정이 예고되어 있어 전시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2부 '전북지역 마한의 자존심, 완주 사람들'은 전북지역의 마한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상운리 유적과 관련된 유물들을 다룬다.

상운리 유적에서 출토된 대량의 철제 무기류와 도구류, 옥 장신구류는 백제 진출 이전의 상운리 사람들의 위세를 말해주고 있다. 특히 6,000여 점에 이르는 옥은 마한 사람들의 미적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문화재로 세공 수준은 조금 투박하지만 그 색깔과 영롱함은 신비롭기까지 하다.

3부 '후백제 사람들, 삼한통일의 꿈을 꾸다'의 주요 소재는 후백제와 완주 봉림사지이다. 봉림사지에 서려 있는 후백제 사람들의 염원과 기도를 현대미술의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했는데, 완주에 살면서 활동



하고 있는 작가(권성수, 노정희, 이우영, 임세진)들이 참여했다. 현재 봉림사지에서 출토된 석등과 석탑은 일제강점기 무단 반출되어 군산발산초등학교 뒤뜰에 있고, 삼존석불은 전북대학교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본래 봉림사를 지키던 조각들이었지만 흩어진 후백제 사람들의 꿈처럼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있다. 작품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정은성 기자*

한자리에 모일 봉림사의 모습과 후백제 사람들의 마음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연계 행사가 예정돼 있다. 먼저 오는 21일 10시에는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완주군청·국립전주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가 공동주최하는 '만경강유역의 고고학적 성과'라는 학술세미나가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20일 1차에는 원광대학교 고고미술학과 최원규 교수가 '마한의 태동과 성장, 그리고 완주'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2차에서는 국립광주박물관 진정환 학예연구관이 '국가 비문의 상징, 완주의 불교미술'로 실시한다. 또한 완주문화재단과 함께 완주지역의 공예작가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리마켓 '완주 크리에이티브페어'가 22일 오전 10시부터 박물관 정원에서 열린다. 마지막으로 7월 6일 오후 2시에는 일제강점기 완주지역의 아픈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삼태, 다시 봄'이라는 뮤지컬도 준비 중이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학교흡연 예방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흡연예방과 금연 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역별로 사례 중심 학교흡연예방사업 업무를 공유해, 담당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업무별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학교흡연예방사업에 내실화를 기해 흡연예방·금연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학생 지도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호 텔에서 흡연예방·금연실천(심화형)학교 업무 담당자,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청소년금연서포터즈 담

당교사,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국가금연정책 및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 안내 ▲흡연예방·금연실천학교 관련 사업 운영 사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이성규센터장의 '신중 담배의 이해' 특강 ▲분임토의 등이 이어진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흡연예방·금연실천 업무담당자 실무 역량을 키우고 전문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 실천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방법 연수를 통해 교육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도내 목재관련 기업들, 전북대에 장학금 기탁

전북에 소재하고 있는 목재 산업 관련 8개 기업이 지난 14일 전북대 목재응용과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장학금을 출연한 기업은 (주)해성티머(대표 조용현)를 비롯해 현대제재소(대표 박창희), (주)전양제(대표 최영재), 나사렛목재산업(대표 최용곤), (주)럭키목재(대표 남승희), (유)태진목재(대표 황만수), (주)행복우드테크(대표 문명철), 태평양연구소(소장 권주혁)다. 조용현 대표 등 8개 목재기업 대표들은 이날 김동원 총장과 이양수 목재응용과학과장을 만나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대학 시설과 도서관 등을 둘러봤다.

전달식에서 (주)해성티머 조용현 대표는 "목재응용과학과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배운 학문을 통해 목재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뜻을 모아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 졸업 뒤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목재산업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전통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학과장은 "목재관련 기업 대표님들이 모여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습은 학생들에게 전북대학교 목재응용과학과에 대한 또 다른 자부심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지속적인 산학연계를 통한 교류확대 및 우수학생 유치를 노력하



전북에 소재하고 있는 목재 산업 관련 8개 기업이 지난 14일 전북대 목재응용과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도서 등을 기증했다.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8개 기업 대표가 십시일반 모은 장학금 규모는 1,000만원. 기업들은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출연해 기금 규모를 늘려갈 계획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박물관,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성료

전주대학교박물관이 지난 5월3일부터 6월13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얼어 나라, 빛을 발하라'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관람객의 요청으로 10일간 전시를 연장했으며, 전시 기간 약 한 달 동안 4,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번 특별전은 전시뿐만 아니라 기미독립선언문 탁본체험, 문화유적 답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며 3·1운동의 민족정신과 순국선열, 항일 독립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했다.

3·1운동 현장과 독립운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화폭에 담은 성화작품, 박물관 소장 유물,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유물 등 다양한 성화작품과

유물이 전시돼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특별전과 연계해 전주·군산 지역 3·1운동 문화 유적지 답사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박현수 학예연구실장은 "이번 특별전은 많은 관람객의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전시와 답사, 체험 등을 준비하여 역사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3·1운동 100주년 특별전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주관으로 진행했으며, 서울 (사)남북나눔 운동본부에서도 오는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특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